



#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도약 기회” 로

## 전자분야 한·미FTA 지방(구미)설명회

산업자원부는 4.19(목) 경북 구미(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자산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결과와 우리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업종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지역 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자산업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미에서 개최 되었다.

『한미 FTA 체결현황 및 전자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산자부, 김성진 디지털융합산업팀장), 『한미FTA에 따른 품목별 영향 및 업계 대응방안』(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성복 본부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하고, 업계(전문 패널포함)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대한 소감과 함께 업체별 대응자세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김 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7년 WTO ITA(정보기술협정) 체결 이후,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제품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을 주도해 왔음을 강조하고, 금번 한미 FTA체결로 인한 교역 자유화의 확대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

목인 D-TV 등 프리미엄 가전을 포함한 전자산업 전반의 수출증대와 함께 취약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임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체결에 대응하여 기업마케팅, FDI 환경개선, 핵심·전략기술 개발 지원 등 『전자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업계에서도 금번

FTA를 계기로 수출유망품목의 생산·발굴, 기술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 김성진 디지털융합산업팀장은 『한미FTA 체결현황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한미 FTA 관련 설명했다.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 등을 포함, 양국은 96%대의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즉시철폐기로 합의

### 〈양국 양허협상 결과〉

(단위: 개, 백만불)

구 분	즉시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미 국	품목수	732	28	12	10
	수입액	17,652(95.9%)	342(1.9%)	20(0.1%)	391(2.1%)
한 국	품목수	959	69	8	8
	수입액	10,679(96.1%)	308(2.8%)	41(0.4%)	84(0.7%)

※ 미국 HS코드 8단위, 한국 HS코드 10단위 기준 분류

### 〈양국의 주요 유예품목 현황〉

기 간	한 국	미 국
즉시철폐	칼라TV, VCR, 음향기기, 소형가전 등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소형가전
3년 이내	컴퓨터단층촬영기, 외과용기기, X선관 등	W/F TV(대형), TV부품, 튜너 등
5년 이내	고주파증폭기, 환자감시장치, 치석제거기 등	복합확성기, 평판모니터부품 등
10년 이내	초음파 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 내시경 등	세탁기(완전자동), 전자레인지, 접시세척기 등

※ 휴대폰, 반도체·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IT품목은 WTO ITA('97, 정보기술협정)으로 이미 무관세(ITA 품목 비중('06): 對미 수출(68.9%), 對미 수입(77.0%))

- 중국·일본 제품들과 3~7%대 마진의 박리다매식 경쟁 상황인 가전제품의 경우, 관세인하 등으로 인해 단기적



으로 5%, 중장기적으로 13%대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단기 유망품목: 칼라TV, 에어컨, 냉장고, 소형가전 (청소기 등) 등

※ 중장기 유망품목: 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 수입측면에서는, 대미 기술·품질 경쟁력 열위품목(전자자료, 계측·제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 양국간 전자산업이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 영향보다는 對일·유럽 수입선 전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미국으로부터 원천기술, 장비·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양산부품을 생산·수출 (첨단 장비·부품 : 미국 ↔ 일·유럽 경쟁)

또한, 산자부는 금번 FTA를 계기로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차세대 신기술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전자자료기기 등 취약산업은 유예기간동안 전략기술개발 등을 통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원 김성복 본부장은 한미 FTA에

따른 업계의 대응방향으로,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부품소재 Mover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전자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對미 진출 확대에 대한 사전대비책의 일환으로 미국 제도의 이해증진과 함께 현지 내수시장 동향 및 소비자 구매 트렌드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인디텍, (주)제너비전, 쿠쿠전자(주) 등 전자업계 대표는 금번 한미 FTA 협상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히고, 한미 FTA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자산업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에 대한 활용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42P)

